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부속기관: 꿀벌유치원 857-8545 / 요셉어린이집 857-8546

주임 신부	백승준	시몬
보좌 신부	정혁	요셉 (청년부)
전교수녀	강봉목	마티아 (유·초·중·고등부)
	윤옥주	율리아 (원장)
	이민자	미란다 (중·고등부/청년부)
	최상순	수산나 (유·초등부)
꿀벌유치원	장종수	마리나
요셉어린이집	박화자	글라라
총회장	최석준	마르코 010-5715-0392
연례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성체분배자회	6월 30일(일) 11:40	성체조배실
자녀를 위한 기도	7월 05일(금) 19:40	1교실
성모성심회	7월 06일(토) 17:30	강당
우리어머니 Cu.	7월 07일(일) 11:40	식당
사도들의 모후 Cu.	7월 07일(일) 12:00	강당

빈첸시오회 도입 60주년 총회

- 일시 : 6월 30일(일), 오후 2시, 강당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시 : 7월 05일(금), 저녁 미사 후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시 : 7월 06일(토) / 오전 6:30

유초등부 여름 신앙학교

- 주제 :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오 5,14)
- 일시 : 7월 20일(토)~21일(일), 1박 2일
- 장소 : 강화도
- 대상 : 6세~12세 어린이
- 문의 : 최웅석 교감(010-5473-9476)

중고등부 여름 신앙학교

- 주제 : “Have Courage!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 일시 : 7월 26일(금)~28일(일), 2박 3일
- 장소 : 느티나무 학교(충북 단양군)
- 대상 : 중고등부 전 학생(초6~고3)
- 참가비 : 85,000원(접수 후 환불 불가)
- 대상 : 중고등부 전 학생(초6~고3)
- 문의 : 이소율 마리스텔라(010-9216-5658)

알림

- 오늘은 교황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미사 7월1일(월) 10:30

수능 수험생 부모 기도 모임

수험생을 위한 부모 기도 모임을 하고자 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홍선희 베로니카(010-4435-7375)
- 상세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전례교육 안내

- 일시 및 장소 : 7월 7일(일), 오후1시, 강당
- 대상 : 해설자, 독서자, 관심 있으신 신자
- 강사 : 백승준 시몬 주임신부님

다음 주일(7/07)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7, 8월 없음	청소	15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6월 19일 ~ 25일)

교무금	5,070,000원
주일헌금	4,718,000원
단식모금운동 2차헌금	2,070,000원

- 황정후 5만원 여성지10만원 박정순10만원
- 감사헌금 김숙경10만원 손상민100만원
국수잔치19구역 5만원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6/30	구민서	조홍환	이응남 김덕영 김성해
7/07	이인옥	오성환	도현만 임종윤 구민서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06:30	10:30	12:00
6/30	오광운	이운영	이화봉 장인홍 최석준	목윤필
7/07	이운영	이화봉	최영만 최석준 최승일	장인홍



6월 생활환경 캠페인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가정생활환경분과 제안)

성가번호 ♪ 입당 : 50 ♪ 예물준비 : 510, 514 ♪ 영성체 : 163, 188 ♪ 파견 : 199

화답송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 나 이 다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II. 기술 지배 패러다임의 세계화

106. 근본적인 문제는 좀 더 심각한 다른 것, 곧 인류가 기술과 그 발전을 획일적이고 일차원적 패러다임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는 외부 대상을 논리적 이성적 과정 안에서 점진적으로 인식하여 지배하는 주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소유와 지배와 변형의 기술인 과학적 실험적 방법을 정립하려고 이 주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는 마치 이 주체가 완전히 제멋대로 조작할 수 있는 무형의 실재 앞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연에 개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는 사물 자체의 가능성을 존중하며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연이 직접 손을 내밀어 주듯 스스로 허락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만물에 손을 대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종종 우리 앞에 있는 실재를 무시하거나 망각하면서 만물에서 최대한 모든 것을 뽑아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사물들은 더 이상 서로 다정한 손길을 건네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무한 성장 또는 제약 없는 성장이라는 개념을 쉽사리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경제학자, 금융 전문가, 기술자들은 이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는 지구 자원을 무한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짓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구를 그 한계를 넘어서 최대한 ‘쥐어짜는’데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무한한 양의 에너지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것들을 신속히 재생할 수 있으며, 자연 질서의 착취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는 쉽게 완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개념입니다.

107. 그러므로 현대 세계의 많은 어려움은, 사람들이 언제나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의 삶과 사회의 기능을 좌우하는 인식의 패러다임에 따라 과학과 기술의 방법론과 목적을 설정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인간과 사회의 모든 실재에 적용한 결과는 환경 악화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 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환원주의의 한 지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산물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술의 산물은 결국 특정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활 양식을 좌우하고 사회적 기회들을 조성하는 틀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순전히 도구적인 것으로 보이는 결정도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지와 관련된 결정입니다.